

## 한국근대소설의 여성복식에 나타난 문화현상 분석

전 현 실\* · 홍 나 영<sup>+</sup>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Analysis on the Cultural Phenomena related to the Depiction of Women's Costume in Korean Modern Novels

Hyun-Sil Jeon\* · Na-Young Hong<sup>+</sup>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0. 12. 15, 심사(수정)일: 2011. 4. 7, 게재확정일: 2011. 5. 20)

####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iodical discourse of women and their costumes, described in modern novels that were published from late 1890s to the 1930s. New cultural phenomena emerged among Korean women in the period of modernization. In particular, rapid increase of jobs for women and preference for western female body shape are very noticeable phenomena that can be observed in novels of the 1930s. In addition, the symbolic meanings of female costumes are variously described in modern novels according to the periodical and spatial environment and jobs for women. The symbolic meanings are organized as 'Trophysm, Expression of sexuality, Liberation from male-dominated society, Symbolic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Vanity, Decadence, Mechanism tending to hide and Change of values'. And women's costumes kept changing in the boundary of 'Confliction, Coexistence and Harmonization' of traditional and western costumes. 'Confliction' phenomenon got emerged in novels published between 1900 and 1910. The resistance on traditional costumes that restricted woman's life got spread. But western female costumes as a symbol of new culture could not be generalized but accepted as high fashion. 'Coexistence' phenomenon was appeared in novels of the 1920s. At that time, the modernization for traditional costumes by female students was emerged along with trendy fashion. Also, the frequency of using western fashion items was increased in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it shows that western costumes in the Korean society became popularized in the coexistence with traditional costumes. 'Harmonization' phenomenon was emerged in novels of the 1930s. In the novels, the emergence of western female costumes, personal preference items, and westernized hair style implies that western costumes were absorbed into the Korean society that had kept traditional costumes.

Key words: cultural phenomenon(문화현상), Korean modern novel(한국근대소설), modern female costume(근대여성복식), traditional costume(전통복), western costume(서양복)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51-C00180]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Hong, e-mail: nyhong@ewha.ac.kr

## I. 서론

近代 시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은 외국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창조하여 당시의 이념과 가치관에 획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회 변화는 단절적이기 보다는 점진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근대 초반기(1890년대 후반-1910년대)에 가장 강조된 시사적 화두는 문명과 개화로, 당시 여성들은 신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거론되기 시작했고<sup>1)</sup>, 이후 적극적 사회참여를 지향하게 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변모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반영 척도로, 신문·잡지 등의 매체 외에 문학작품이 있는데, 특히 근대소설은 전통과 근대 요소 사이의 갈등 및 당대의 사회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므로, 당시의 시대 담론 파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시에 소설 속 여성들, 그들의 취미생활·연애와 교제·유행과 패션 등은 소설 속 담론의 주요한 소재로 근대여성문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대여성복식 관련 연구는 한국복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일부로 정리<sup>2)</sup>되거나 신여성, 여학생, 모던걸의 근대적 외양과 패션 유행 현상 및 이에 대한 대중 의식을 고찰<sup>3)</sup>한 것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화기 이후부터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우리나라 근대복식의 변화요인 분석과 패션의 변화 양상 및 사회상의 시대 순 고찰 연구<sup>4)</sup>와 1920년대-30년대를 중심으로 한 당시 신여성과 그들의 패션경향 연구<sup>5)</sup>가 대부분이고, 이외에 모던보이, 모던걸 복식문화의 미국화 경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sup>6)</sup>, 개화기 여성복식 중 궁중복식에 대한 접근<sup>7)</sup>, 근대 한국 여성속옷의 간소화 고찰<sup>8)</sup>, 1876년-1945년 여성 장신구의 전개와 수용과정 연구<sup>9)</sup>, 식민지 시대 언론매체 기사를 통한 근대 복식의 출현과 확산양상 및 유행을 추종하는 대중에 대한 논의<sup>10)</sup>도 주목할 만한 연구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주로 화보 및 신문이나 잡지 기사와 풍자화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당대에 간행된 소설을 통한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근대여성복식의 키워드를 '서

양식', 즉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1900년대-1930년대까지 발행된 소설 속 여성과 그 착용의상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전통과 서양 복식이 꾸준히 공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작가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근대소설 속 여성과 그들의 복식에 투영시키고 있었다.

다만 선행연구들 중 근대소설을 소재로 하여 근대여성복식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소설 속 여성과 그들의 복식에 대해 이분화된 관점으로 분석한 홍성범<sup>11)</sup>, 조진숙<sup>12)</sup>의 연구와 작품 속 단어들을 한국적 미의식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정경임<sup>13)</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시기별(1900년대-1930년대) 근대소설 속의 다양한 유형의 여성상과 그 여성이 착용한 비언어적·시각적 의사표현으로서의 복식을 고찰하고, 소설 속 여성복식과 당시 사회문화적 현상과의 관련성을 '충돌, 공존, 조화 현상'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여성복식 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근대소설 소재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특정 시대의 복식문화 이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890년대 말-1930년대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 이유는 19세기 말, 서양문화 도입 이래 당대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통 고수와 서양 문화 수용의 갈등 속에서 근대화 과정을 이루게 되고 1920-30년대에는 모던보이, 모던걸이라는 근대 주체세력의 등장, 근대도시 중심의 소비와 유행이 서구 취향으로 발전, 백화점과 카페 등의 근대도시 소비 공간의 활성화, 영화와 사진 등의 기계 복제문화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서구의 근대적 특성과 함께 서양복이 일상생활에 등장한 시기<sup>14)</sup>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1) 1890년대-1930년대에 발표된 소설, (2) 여성을 대상, 착용자의 의복과 이와 관련된 지문이 언급된 소설, (3)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발표된 소설의 시점과 일

치하는 것, (4) 중단편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22권<sup>15)</sup>에 게재된 소설 중 총 52편<sup>16)</sup>이 선정되었고, 작가는 총 29명이다.

## II.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성상

### 1. 문화 변화 이론을 통해 본 근대소설 속 여성상의 유형

문화는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포함하면서 역사적 확산도 염두에 둔 개념<sup>17)</sup>으로, 이에 대한 문화이론은 사회성 상징과 표상된 이미지에 의해 재기술된다.<sup>18)</sup>

특정시기의 사회현상과 그 상징성을 밝히기 위해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문화연구는 그람시(A. Gramsci), 윌리엄즈(R. Williams), 홀(S. Hall) 등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협의의 문화개념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사회 권력과 사회적 투쟁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지평을 제공하였다.<sup>19)</sup> 그람시는 문화현상 속에서의 헤게모니가 사회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sup>20)</sup> 윌리엄즈는 그람시의 연구를 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발달시켜, 헤게모니 그 자체가 여러 압력들에 의해 항상 '저항·제한'과 '변화·도전'을 받는다<sup>21)</sup>는 전제 하에서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잔여 문화, 지배 문화, 창발적 문화'의 관계로 설명하였고<sup>22)</sup>, 홀은 주변(사회의 소수자)으로부터 중심을 바라보면서, 주류 전통문화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의 한계와 틈새를 지적하여 독특한 문화적 시각을 구성해나갔는데<sup>23)</sup>, 상부구조로서의 문화로 정리하기보다는 복합적 구조 속의 한 층위로서 문화를 이해하였다.<sup>24)</sup>

근대시기 여성복식문화의 특징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떤 구체적 문화를 적용하던 문화적 갈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sup>25)</sup>한 윌리엄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통적 여성상을 포함하여 근대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두 유형의 여성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윌리엄즈 이론에서 제시된 '잔여 문화'는 앞선 시

대의 문화제도나 형성물의 잔여물들로, 문화과정 속에서 여전히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과거 요소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이루는 유력한 존재를 가리키고, 근대소설 속에서는 舊風을 답습하는 '전통적 여성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창발적 문화'는 새로운 의미체계, 가치관, 관행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차원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舊習의 '지배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대항문화'의 맞물림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근대 소설 속에서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서양식 외모를 지향 혹은 전통적 외모를 유지하면서도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복합적 여성상', 근대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新風을 추종·지향하는 '근대적 여성상'으로 나타났다.

### 2. 근대소설 속 여성상의 특징

근대 이전 대부분의 여성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가부장적 사회 통념에 묶인 사회 약자로서 존재했으며, 內外法이라는 굴레에 속박 당했다. 근대시기 도래 후, 당시 사람들은 서구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과 배척'이라는 양립된 갈등 속에서 근대 문화를 형성시켰고<sup>27)</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대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서구 문화의 수용은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여성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설 속 근대 여성들에 대한 '창발적 문화현상'은 능동적 가치관의 부상, 직업 역할의 다양화, 지리적 활동 공간범위의 확대,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기준 변화로 나타난다.

#### 1)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능동적 가치관 형성

근대화 이전 대부분 여성들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인 남성에게 종속당하고 활동범위와 가치관에 제한받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란봉(1913)>

의 최씨 부인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 노출을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전통적 여성상'을 보여준다. 근대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전통적 사고방식 속에 안주하는 여성상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고행(1936)>의 정희와 <치숙(1938)>의 우리 아주머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부터 신문매체를 통해 문명개화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거론되기 시작<sup>28)</sup>한 이후 3. 1 운동을 계기로 여성들의 문화·사회활동 등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남권 우위의 사회구조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대의 성구분과 역할 등의 모든 가치체계는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sup>29)</sup>

당시 여성들은 새 시대에 맞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의 고취가 유도되었는데, 1900년대 초반 계몽적 성격의 소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애국정신(1908)>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진보성향의 부인들에게 장옷과 쓰개치마 사용에 대한 舊風 타파를, <자유종(1910)>에서는 신설현과 이매경의 주장을 통해 당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의 요구는 근대화와 더불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성역할과 위상에서 전통적 여성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되어 '신여성'이라 불렸다.<sup>30)</sup> 신여성은 근대의 상징이자 흠모의 대상으로, 새로운 감각적인 멋과 지식의 소유자로서의 긍정적 이미지가 부여되었다.<sup>31)</sup>

1920년대가 되자 여성의 해방과 평등이라는 변화요구는 더욱 강해져, 특히 1930년대 소설 속 여성 대부분은 타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거나 결혼과性に 대한 개방의식을 갖고 있고, 성역할 측면에서도 남성과 동등 혹은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남녀 고유 영역의 경계선이 이전보다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낙동강(1927)>의 로사는 서울에서 사범과를 마친 여성 동맹원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 반항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어머니와 딸(1931)>의 주옥은 시골에서 살면서 남편과의 이혼

을 두려워했으나 경성으로 이주하고 여학생으로 변모 후, '자기의 젊음을 무가치하게 희생당하면서' 남편에게 의존했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확립해나갔다. 이와 더불어 <순공있는 일요일(1936)>의 아내는 사회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신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남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신여성들에게 정립된 새로운 가치관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하지만 당대 사회는 신여성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했던 자유연애, 자유결혼, 정조불감증, 문란한 성생활<sup>32)</sup> 등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함으로써, 이들을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타락과 방종'으로 비난과 경멸을 받는 이중적 시선<sup>33)</sup>으로 바라보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연실전(1939)>의 김연실은 일본 유학생이지만 주체성이 결여되고 허세로 가득 찬 속물이자 왜곡된 자유연애 주창자이다. 이밖에 <지새는 안개(1923)>의 여학생 화라, <비탈(1937)>의 여학생 수옥, <薔薇 病들다(1938)>의 연극배우 남죽, <지맥(1939)>의 여학생 하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2) 직업 역할의 다양화

여성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근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등장한 '직업여성'은 능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근대 사회를 이끄는 독립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즉 근대가 제공한 새로운 직업들은 여성들에게 전통적 여성 공간이었던 가정과는 다른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sup>34)</sup> 여성들의 직업에 따라 학교, 병원, 카페, 백화점, 잡지사, 공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여성의 직업은 근대화 초기, 소수 지식인층에 의한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서 점차 서비스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이후 뚜렷해졌고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sup>35)</sup>인 속성을 띠었다. 또한 직업여성들은 '중심부 여성'과 '주변부 여성'<sup>36)</sup>으로 분리되었는데, 중심부 여성은 도시의 상류층을, 주변부 여성은 도시의 하류층을 각각 상징하였고, 이는 또 다른 사회계급을 형성시켜 여성 간의 서열화를 야기시켰다.

소설 속에서도 1920년대부터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1920년대에는 전업주부<sup>37)</sup>, 여학생<sup>38)</sup>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마음이 열린 자여(1920)>의 Y와 <B사감과 러브레터(1925)>의 B여사는 교사, <만세전(1922)>의 정자는 카페 걸, <죽음(1924)>의 전주집은 기생, <낙동강(1927)>의 로사는 여성동맹원 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후 1930년대에는 직업군이 한층 다양해지는데, 여학생<sup>39)</sup>, 매춘녀<sup>40)</sup>, 카페 여급 및 마담<sup>41)</sup>, 식모<sup>42)</sup> 외에 <이반(1933)>에서 '각다갈'로 불리는 다방 종업원, <따라지(1937)>에서 여공, 버스 걸, <부채(1939)>의 화가, <동방의 애인(1930)>에서 잡지사 비서와 간호부, <거리의 목가(1938)>에서 가수와 피아니스트, <탁류(1937-38)>에서 약국판매원, <화상보(1939-40)>에서 성악가, 백화점 판매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30년대 후반이 되면 매춘을 하거나 카페라는 퇴폐적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의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에 서비스 업종 여성이 증가한 것은 쉽게 돈을 벌려는 사회풍조나 경제공황에 의한 일자리 축소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은 남성 실업자 비율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인텔리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틈틈이를 대량 양산시켰고, 사회부적응·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사회로 내몰린 여성들은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예는 <지주회시(1936)>, <날개(1936)>, <어떤 夫妻(1938)>, <치정(1938)>, <나비(1939)>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薔薇 病들다(1938)>의 남죽은 배우로서 활동하였으나 극단이 문을 닫은 후 매춘을 하게 되었고, <영원의 미소(1933-34)>의 계숙은 학생 운동가였으나 투옥 이후 생계를 위해 백화점 점원을, 순정혜협(1938)의 소희는 교사였으나 남자의 배신과 출산으로 인해 백화점 점원으로, <지맥(1939)>의 은영은 일본 유학생이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생계를 위해 식모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처럼 직업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은 중심부에 속해 있던 여성이 주변부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로서, 사회적으로는 제도화되지 않은 신분의 하락으로 볼 수 있다.

### 3) 지리적 활동 공간범위의 확장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교육을 받거나 일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여성의 공적영역, 즉 활동 공간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1900년대 이후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일본 및 미국이나 독일로 유학하게 되면서 그 활동 영역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확대되었다. 소설 속에서는 190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혈의 누(1906)>의 김옥련은 일본과 미국, <은세계(1908)>의 최옥순은 미국, <비탈(1937)>의 주희, <김연실전(1939)>의 김연실, 최명애, <失花(1939)>의 C양, <만세전(1922)>의 올라, <어머니와 딸(1931)>의 숙희, <순정혜협(1938)>의 명신, <화상보(1939-40)>의 이영옥은 모두 일본에서 修學하였다. 이외에 <동방의 애인(1930)>에서의 배영숙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거리낌없이 상해, 동경, 하와이를 다닐 수 있었고, <화상보(1939-40)>의 경아는 독일로 건너가 국립 백림(베를린)음악학원에서 연구 후 소프라노로서 성공을 거두지만 그녀의 경제적 지원자인 상권을 떠나면서 일본에서 댄서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 4)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기준 변화

'몸'은 물질성, 개인성, 사회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신여성에게서 나타났던 신체의 변화는 근대성의 지표의 하나로 근대 시기에 대한 실증적 담론을 제공한다.<sup>43)</sup>

서구 여성의 외양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근대한국 여성의 美의 개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미의 기준이 수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인식은 미인대회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 기준은 여성의 얼굴에서 몸 전체로 이어졌다. 이때 서구 여성 기준의 신체, 체격에서 나타나는 건강미는 문명화의 한 척도로 나타났고, 인간의 신체가 급격하게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서구 여성의 얼굴과 몸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인식되자, 전통 사회에서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던 건강미 역시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주목되면서, 여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을 통해 근대적 여성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sup>44)</sup>로 여겨졌다. 또한 대중매체와 서양 영화, 광고의 발전도 육

체를 보는 기준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이에 따라 통통한 신체가 미의 기준으로 인식되었던 전통적 여성상 대신 서양 여배우의 날씬한 몸매와 미끈한 다리가 근대의 표상으로 찬미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sup>45)</sup>

소설 속에서는 작중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선호했던 몸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탈(1937)>에서 수옥 어머니는 “주희 얼굴은 휘언하기도 하다. 불빛에 보니 달덩이 같구나. 살비슴도 좋기도 하고...(중략)...왜 우리 수옥이는 빼빼하니 살기가 없는지 몰라.”하면서 수옥의 마른 몸을 안타까워하는데, 이에 대해 주희는 “그러니까 신식 미인이랍니다. 서울서도 유명한 미인이랍니다”라고 하였다.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체상이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반면, 서울의 여학생 사이에서는 마른 몸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1930년대 소설에서도 마르거나 서구적인 몸매를 선호했음이 파악되는데, <동방의 애인(1930)>에서 박진은 부인인 배영숙과의 첫 만남에서 그녀의 ‘날씬한 허리, 하얀 살’의 스마트한 외모에 반했다는 내용, <따라지(1937)>에서 카페 여급인 영애는 동료인 아끼꼬의 인기와 그녀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똥똥하고 못생긴 자신을 한탄하며 ‘주체곶은 살을 말리고자’ 아편도 먹어봤을 정도로 날씬한 몸에 대해 동경하고 있고, <부채(1939)>에서 화가인 당신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해수욕복 밑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곡선미’와 같은 내용들은 마르면서도 곡선적인 바디라인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섹슈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1930년대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상업화되고 있는 근대 여성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 Ⅲ. 근대 소설 속 여성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근대시기 소설 속 여성들(전통적 여성상, 복합적 여성상, 근대적 여성상)에 의해 선택된 복식은 특정 사회집단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상

징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장을 통해 복식에 담겨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의복 품목과 소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트로피즘적 외양성

트로피즘(trophysm)은 복식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옷을 통해 착용자의 경제적인 부유함, 유행에 대한 관심, 지성미를 표현하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 부유함의 척도는 의복 소재, 비단류 및 인조섬유 의복과 다양한 서양식 의복 및 여우목도리, 장갑, 하이힐, 양산, 반지 등과 같은 잡화로 정리되는데, 이들 품목 중 일부는 빈곤한 계층의 모습이나 생각과 대조시켜 묘사되고 있다<표 1>.

<혈의 누(1906)>의 “손이 명주같이 부드러운” 최씨 부인은 “십이승 아랫질 세모시 치마”를 입고 있는 것에 반해, “셋곳은 일로 자라난” 농부 아내는 “팔승 무명을 강풀 한 뒷박이나 먹었던지 장작같이 풀센 치마”를 입은 대립적 외양 묘사로 경제적 차이를 인지시키거나 <은세계(1908)>에서는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은 아니하는” 최본평 집은 “겨울에...(중략)...등에 솜조각 두둑한 터”라는 지문으로부터 1900년대 초반의 ‘솜옷’에서 내포되는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술 권하는 사회(1921)>의 아내는 “친척들의 비단 옷과 금지환”을, <빈처(1920)> 아내는 “T가 아내를 위해 선물할 흰 비단 바탕에 매화 수의 양산”에 대한 소유 욕구를 언급하고 있고, <조그만 일(1926)>에서 길진은 “양산을 접고 포복전 안으로 들어가는 과란 비취 옥비녀의 젊은 여성”과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아내의 불행한 모습을, <탁류(1937-38)>에서는 “부유한 모시 진술 차림의 한참봉 부인 김씨와 가난한 정초봉의 허름한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의 비교, <빈처(1920)> 아내의 “아버지 생신으로 친정에 갈 때 차려입은 당목 옷”과 “길 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착용한 비단옷”과 대조, <사하촌(1936)>에는 “백중날 보광사에서 생노방주 옷을 걸치고 잘난 체하는 여성들과 이와 달리 풀이 뻗뻗한 삼베 치마를 입고 있는 자기들의 옷차림을 부끄러워하는 빈곤한 성동리 여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트로피즘적 외양상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주부	12승 세모시(06), 솜옷(08), 생노방주(36), 모시 진술(37-38)	시골	부유함	전통적 복합적 근대적
	양산(20), 비단(20, 21), 금반지(21), 여우목도리, 회색장갑(24)	서울		
여학생	- 저고리감 : 왜사(32) - 치마감 : 조세트(32), 보이루, 인조견(37) - 잡화 : 하이힐, 양산(32), 비단 양말, 손목시계(37)	서울		
성악가	케이프 칼라의 애프터눈 드레스(39-40)	서울		
기생	비취옥비녀, 양산(26)	서울		
기생	서양식머리, 하이힐, 망토(24)	서울	유행추구	복합적 근대적
여학생	구두(31, 32), 트레머리, 손목시계(31, 35), 양산(35)	서울		
식모	히사시가미(39)	서울	지성	근대적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또한 1930년대에는 여학생들의 의복 소재 중 “왜사, 조세트(미완성, 1932), 보이루, 인조견(비탈, 1937)”은 당시 신소재로서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 소재의 사용을 경제력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전화(1924)>에서 이주사의 아내는 “전당국에서 나온 두루마기에, 외투에, 여우 목도리를 걸치고 남편이 저번 날 사온 회색 장갑을 끼고” 외출하는데, 걸옷을 두 겹 겹쳐 입는 과도한 차림과 함께한 여우 목도리는 타인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유행 추구는 1920년대부터 서양식의 새로운 품목을 착용했던 여학생이나 기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미완성(1932)>의 강영순은 처녀시절 “유행따라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던” 부유한 집안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유학했을 때 특히 ‘구두’에 대한 관심과 기호가 커지면서 “뒷굽 높은 뽀족구두”를 소유하게 된 이후 충만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자기 또래 처녀들과 마주칠 때에는 보라는 듯이 소리를 더 크게 땅땅 내면서 걸었고 구두바닥이 내는 뽀드득 소리에 기고만장하곤 했었다”. 이를 통해 영순에게 구두는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수좋은 날(1924)>에서 인력거꾼인 김침치가 길가에서 만난 “서양식 머리와 하이힐, 망토”를 착용한 젊은 여성에게 호객 행위를 하자 “왜 남은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껌꼬리 소리지”라고 그 여성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 냉소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여성의 모습이 항상 긍

정적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어머니와 딸(1931)>에서는 시골에 사는 전통적 여성상의 주옥이 일본 유학생 남편이 사랑하는 숙희의 트레머리, 구두, 손목시계와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운 자태에 질투하면서도 자신감의 상실을, <남매(1935)>의 현덕은 “트레머리에 양산을 받고” 오빠와 함께 걸어가다 불량배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은 ‘트레머리, 양산’을 하고 있던 현덕을 여학생으로 판단한 것으로, 당시 여학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현덕을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지성의 표현에 대해 <지맥(1939)>에서는 일본 유학생이었던 은영이 개인 사정으로 기생 김연화 집의 식모로 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머리 모양에 대해 “남의 집살이를 온 사람이 ‘히사시개민’하구 야단이니...(중략)...여보 당신 어디 부레먹겠소”라 하여 히사시가미 머리형이 갖고 있는 지적 이미지와 그에 대한 김연화의 자격지심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트로피즘 현상은 1900년-1930년대에 걸쳐 모든 여성상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빈곤 계층의 여성들 중 1900년대 소설 속 여성들은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20, 30년대 소설 속 여성들은 사회의 낙오자로서 심리적으론 위축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보다는 안주하는 전통적 여성상의 경향이 크다.

또한 1920년대부터의 유행추구는 여학생과 기생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전통과 서양 복식문화의 편차

가 심했던 당시, 이들은 새롭게 도입된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하이칼라’처럼 패션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근대적 여성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2. 섹슈얼리티 표출

섹슈얼리티 표출은 은폐부위의 노출, 바디컨셔스(body-conscious), 시스루(see-through), 감각적 후각으로 정리된다(표 2). 첫째, 은폐부위의 노출은 평소 옷 속에 가려져 있던 부위인 발, 다리, 속옷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새는 안개(1923)>의 기생 설향과 <종생기(1936)>의 정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둘째, 바디컨셔스는 <부채(1939)>에서 화가인 당신이 “연자춧빛 명주 해수욕복”을 입었을 때 드러난 “육체 그 자체와 같이 나타난 곡선”이라는 직접적 표현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폐부위의 노출과 바디컨셔스 이미지는 타 남성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비정숙·부도덕의 개념이 내포된 것인데, 內外 윤리관이 잔존하던 당시에는 정숙한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난 의도적 행위로서 볼 수 있다. 반면 <황토기(1938)>의 분이가 만취 상태에서 “걸어 올려진 베치마 자락 밑으로 새하얀 다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 <성황당(1937)>의 순이가 개울가에서 “저고리, 치마와 베 바지마저 벗는 것”, <지맥(1939)>의 기생 김연화가 은영과의 첫 대면에서 “고쟁이 바람으로 경대 앞에서 화장을 지우던 모습”의 노출은 비의도적이고 일상의 모습 그대로인 것으로, 정숙성의 개념과 무관한 계몽

의 부재에 따른 無知함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위계질서에서 하위에 있는 1930년대 하층민은 아예 도덕이나 규범 등 제도적 차원을 벗어난 상태의 성욕을 지닌 여성으로 재현되었고, 어떤 도덕성도 자의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의 性이 노골적으로 형상화되었다.<sup>46)</sup>

셋째, 시스루 룩을 통해 표출되는 섹슈얼리티는 <타락자(1922)>에서 기생 춘심의 “연분홍 숙고사 저고리 밑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는 어깨의 윤곽, 들었다 굽었다 하는 팔”, <환시기(1936)>에서 “항라적삼 성긴 구멍으로 순영의 小麥빛 호흡이 드나드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밀도가 낮고 얇은 ‘紗, 羅’로 제작된 의복을 통해 느껴지는 쾌락이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타락자(1922)>에서 묘사된 “아내의 옥양목 저고리, 연분홍 庫紗 저고리 입은 춘심”은 아내를 밀도가 높고 텁텁한 느낌의 면직물인 ‘옥양목’으로, 춘심을 얇고 감각적 느낌의 견직물인 ‘고사’에 적용시켜 춘심의 것과 다른 아내의 저고리를 통해 아내를 전혀 섹슈얼하지 않고 수더분한 여성상으로 고착화시켰다.

넷째, 후각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표현으로, <날개(1936)>의 ‘나’는 아내 연심의 “가지각색의 화장품병”에서 나오는 “이국적인 섹슈얼한 향기”로 “아내의 體臭”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소설 속에서 “꽤 도발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술한 ‘은폐부위의 노출, 바디컨셔스, 시스루’가 시각적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에 반해, 이는 후각적 감각을 자

<표 2> 소설 속 복식에서 나타난 섹슈얼리티 표출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기생	신발, 버선, 속옷, 종아리(23)	서울	은폐부위의 노출	시각적 자극	전통적 근대적
매춘녀	드로우어스(36)	서울			
주막새주가	다리(38)	시골	노출에 대한 정신적 계몽 부재		전통적 복합적
전업주부	치마, 바지 탈의(37)	시골			
기생	고쟁이 차림(39)	서울	바디컨셔스		근대적
화가	명주 해수욕복(39)	서울			
기생	숙고사 저고리(22)	서울	시스루	전통적 복합적	
카페여급·주부	항라적삼(36)	서울			
매춘녀	화장품의 섹슈얼한 향기, 아내의 체취(36)	서울	감각적 후각	후각적 자극	복합적

품목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극시켜 섹슈얼리티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 속에서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비중이 크게 묘사되었다.

193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섹슈얼한 여성들 대부분은 매춘녀, 기생과 같은 소위 주변부 계층의 직업여성으로 작가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섹슈얼 표현의 등장은 1930년대에 부각된 근대적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직업적 한계는 있으나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의 다수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 3.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은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자인 남성에게 의존, 안주하는 가치관을 지녔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으로부터 받았던 '의복 품목, 즉 여성의 자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남성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아를 회복시키고 있다.

〈영원의 미소(1933-34)〉의 사립 여학교의 학생이었던 최계숙은 학생운동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다 물질적 유혹에 빠져 결국 전문학교 교수인 조경호의 집에 은거하는데, 경호의 의도적 접근과 계속에 대한 집착, 억압에 대해 깨닫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호로부터 받았던 "털을 댄 외투와 팔뚝시계"를 던지면서 집을 뛰쳐나오고 과거 백화점에 다닐 때 입던 "저고리, 치마"를 꺼내 입을으로써 경호와와의 적극적인 분리를 시도한다. 그리고 〈성황당(1937)〉에서 시골에 사는 순이는 그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땀기, 고무신, 좋은 소재의 옷과 같은 물질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물로서,

광부였던 칠성이가 준 "분홍 향라 적삼과 수박색 목메린스 치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남편을 버리고 칠성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칠성으로부터 받았던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 버림으로써 칠성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표 3〉).

이처럼 자아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의존했던 남성으로부터 적극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1930년대 여성의 사회에 대한 진취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당시 사회에 급격히 증가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소설 속 여성들은 근대적 사고방식에 전통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복합적 여성상이 반영된 것이다.

### 4. 都農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근대 도시의 물질적 풍요, 기계문명의 거대한 메카니즘, 도시 문명의 새로운 감각 등은 도시를 場으로 한 근대 문명이 전통을 압도하는 주요한 표상으로써, 19세기 후반 이래 농촌은 무지와 가난, 무질서의 공간으로, 도시는 이상향의 공간이자 문화와 교육의 중심점이며, 부와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는<sup>47)</sup> 공간으로 보았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차이는 같은 품목이지만 都農의 공간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데, 소설 속에서는 '고무신'과 '메린스' 치마를 예로 들 수 있다(〈표 4〉).

첫째, '고무신'에 대해 소설 속에서는 고무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 나타나는데, 농촌 배경 소설에서는 부유함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반면, 서울 배경 소설에서는 빈궁한 살림의 잔재, 저렴함, 서민적, 편리함을 상징하고 있다. 먼저 농촌 배경 소설 중 〈금따는 콩밭(1935)〉에서 농부 영식의 아내는 콩밭에서

〈표 3〉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학생 운동가, 백화점 점원	털을 댄 외투, 팔뚝시계 '탈의'(33-34)	서울	자아, 정체성 확립	복합적
주부	분홍 향라 적삼, 수박색 치마 '탈의'(37)	서울		

품목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표 4>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都農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농부 부인	흰 고무신	시골	부유(35)	전통적
주부		시골	고귀(37) - 남편에 대한 정절	
주부		서울	나들이용(盛裝시)(38) - 경제적 궁핍	
카페 여급		서울	허름(36-37)	
주부	고무신	서울	빈궁한 살림의 잔재(32)	
주부		서울	저렴, 서민적, 편리(36-37)	
주부	검정 고무신	시골	일상용(32)	
주부	메린스 치마	시골	유혹의 최고 수단(37)	
		서울	시대에 뒤쳐진 촌스러움(38)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금이 나와 부자가 된 양근택이 남편이 사준 흰 고무신을 신은 모습을 부러워하며 “금이냐 평평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생각하는 내용, <성황당(1937)>에서 숯 가마꾼의 아내 순이는 남편 현보가 큰 마을에서 사온 흰 고무신을 갖게 되자 평상시에 신고 있던 짚신을 벗고 새 고무신을 “밤새도록 자지 않고 신만 신었다 벗었다” 했는데, “이런 신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신을 것이 못 되어 보였다. 아랫마을에도 흰 고무신을 신은 여편네라고는 구장택 한 사람 뿐인 것만 보아도 알 것”이란 내용에서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보가 그 흰 고무신을 두고 “하이칼라 신”이라 한 것은 시골에서 흰 고무신은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멋쟁이의 신발로 통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완성(1932)>에서는 시골 여성들이 “항상 베치마에 베적삼을 입고 맨발에 검정 고무신을 신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무신이어도 흰색과 검정색이 갖는 의미는 달랐을 것으로 흰 고무신은 때가 타면 눈에 잘 띄어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하는 반면, 검정 고무신은 밖에서 일을 하다 때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신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서울 배경 소설 중 <천변풍경(1936-37)>에서는 청계천 빨래터에서 점령이 어머니가 말한 “고무신이 생겨가지구 모두들 싸구 편헌 통에 그것만 신으니, 그래 정신 마른신이 당최 팔릴 까닭이 있어?”라는 내용, 평화라는 카페의 여급 기미꼬가 “때물은 행주치마를 두른 채 맨발로 흰 고무신을 꿰고 나왔다”는 내용, <미완성(1932)>에서 여학생 시절

구두 취미를 갖고 있던 영순이 결혼 후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구두 대신 고무신을 사 신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 가난한 서민인 이들은 모두 신기 편하고 값이 싼 신발로 고무신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무신이 시골에서 가치 높은 신발로 여기는 것과 상반된다. 다만 <소복(1938)>에서 용녀가 “나들이할 때만 꺼내 신는 흰 고무신”을 신고 외출하는 장면은 용녀가 흰 고무신을 아끼면서 신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 이는 그만큼 용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메린스 치마에 대한 것으로, ‘메린스’는 ‘머슬린(muslin)’의 일본식 발음으로 평직의 면직물을 말한다. 시골 배경 소설 <성황당(1937)>에서 광부 칠성이 “분홍 향라 적삼과 수박색 목메린스 치마”로 순이를 유혹하자 “순이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빙그레 웃으면서”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만다. 이 옷들은 순이를 유혹하는 최고 수단으로, 순이는 ‘향라와 목메린스’를 고급 소재로 인식했음이 짐작된다. 이에 반해 서울 배경 소설 <어떤 夫妻(1938)>의 희경은 레지스터로 일하기 위해 면점을 보는데, 이때의 모습은 “옥양목 적삼에 검정 메린스 치마를 수수하게 입은” 것으로 이는 유행에 “십년이나 이십년이나 뒤져 보였고”, 희경은 자신의 모습에 자신 없어 하였다. 색상은 다르나 같은 메린스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순이와 도시의 희경의 반응이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사회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수공업 생산 시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음을 고무신, 메린스 치마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화 경향이 시골까지 확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도시인들의 일상생활로 스며든 문명의 다양한利器들은 시골 사람들에게 혁신제품으로 받아들여져, 동일 품목에 대한 시골과 도시 사람들의 인식차가 발생했다고 본다. 또한 소설 속 고무신이나 메린스 치마에 대해 도시인들은 일상적, 서민적, 유행과 동떨어진 것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사용하는 도시 여성들은 전통적 여성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회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통적 여성들은 유행추구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5. 허영

허영은 값비싼 것에 현혹되어 집착하거나 착용자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他人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갖가지 품목으로 자신을 치장함으로써 애써 유행을 쫓아가는 것으로, 소설 속에서는 의복, 퍼머넌트, 트레머리, 반지, 다양한 의복 소재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허영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표 5>.

의복을 통한 허영심의 표출에 대해, <중독자(1935)>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하여 남편 상현의 경제력에 의지하며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했던 명희의 '이브닝드레스'는 당시 상류층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남편의 경제력에만 집착했던 명희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비탈(1937)>의 수옥은 경제적 현실은 외면한 채 "뽕족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금시곶 차고" 다니는 외양만 현대여성의 조건을 갖춘 여학생으로 묘사되고 있고, <김연실전(1939)>에서 연실은 "아무 목표도 없이 동경으로 건너와서 아무 정견도 없이 학교에 들었다가 아무 짓대도 없이 선각자가 되리라는 자부심을 품었던" 여성으로, 그녀에게 있어 학교는 학문의場이기 보다는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전문학생' 출신이라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보랏빛 치마와 화려한 긴 소매와 뒷덜미에 나비모양으로 맨 '리봉'과 뽕족한 구두, 악보를 쓴 커다란 책보를 앞으로 받치고 동경바다를 활보"하였는데, 이러한 과시 욕구 이면에는 허울만

그럴 듯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sup>48)</sup> 연실의 허영심이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통한 허영심의 표출에 대해, <치정(1938)>에서 레지스터로 일하는 회경의 웨이브형 머리스타일은 "동경에서 최신유행"하는 것으로 회경은 "모두들 한다가에 나두 했는데", "보통 칠 원이지만 오 원에 싸게 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당시 유행 통로였던 '도쿄'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高價임에도 "짜구 편허구 신식"이라면서 남편을 설득한다. 하지만 남편 인환은 이에 대해 "바싹 잘린 머리에 전기로 지진 웨이브만이 산란하다"라든지 "그릴에 있는 애들이 동경 동경 하는 것도 듣기 싫었으나"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태도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第一課 第一章(1939)>에서 남편을 따라 시골로 귀농한 수택 아내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시아버지인 김영감은 "아들 내외가 대처 사람인 체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고", "머느리의 트레머리도 못마땅해"하자 "그 처는 쪽을 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트레머리'는 도시 여성의, '쪽 머리'는 농촌 여성을 상징하는 머리로 볼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농촌에서는 당시 도시의 신여성이 즐겨했던 '트레머리'가 사치나 허영의 산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지를 통한 허영심 표출에 대해, <빈상설(1908)>에서 서정길이 평양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고개에서 구입한 반지와 <태평천하(1938)>의 15세 기생 춘심은 72세 윤직원 영감에게 "빠알간 루비 박은 거, 십팔금으루 가느다랑게 맨든" 반지를 사달라고 조른다. 윤영감이 "반지 파년 가게에서 똥-간헌 여학생이 반지 산다구 승보면 어쩔래?"하자 춘심은 "남이 승보는 게 무슨 상관 있나요? 나만 좋았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영심 충족이 가능하면 他人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영감 아들 중수는 뇌물용으로 총독부 내무부의 지전씨의 부인에게 줄 "이천원짜리 금강석 반지"를 사고자 아버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너무 비싸 지전씨가 살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 지전씨 부인의 허영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비(1939)>에서 카페 여급인 최명순(프로라)이 최형태로부터 "붉은

〈표 5〉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허영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여학생	양장, 금시계(37), 하이힐(37, 39), 나비모양 리본(머리장식), 책보(39)	서울, 도쿄	허영	전통적 복합적 근대적
카운터 계산원	심프슨 머리, 퍼머넌트(38)	서울		
주부	이브닝드레스(35)	서울		
	트레머리(39)	시골		
기생	- 옷감 : 무관사, 숙고사, 무문관사, 남수인, 숙접영, 수인, 무문숙주(08), 감정, 삼팔, 모본단, 하부다이(겉감), 살팔, 명주(고쟁이감)(39) - 잡화 : (루비) 반지(08, 38)	서울		
카페 여급	루비 반지(39)	서울		
총독부 부인	다이아몬드 반지(38)	서울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루비” 반지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단지 ‘루비 반지’이기 때문으로, 남자에 대한 애정과 무관하게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서도 “세상에 물질을 떠난 순 애정만의 남녀 관계라는 것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여 물질만능의 허영심에 노출된 프로라의 생각을 냉소하고 있다.

의복 소재를 통한 허영심의 표출에 대해, 〈빈상설(1908)〉에서 기생 부용(평양집)은 서정길에게 다양한 종류의 비단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지맥(1939)〉에서 기생인 김연화는 “매일같이 갈아입는” 속옷의 소재로 “감정 삼팔 모본단 ‘하부다이’, 살팔이나 명주”를 사용하는 “호사스런 옷치장”을 하고 있다. 이때 부용, 연화 모두 ‘기생’이라는 직업적 공통성과 함께 지나칠 정도의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

허영의 추구는 모든 여성상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다수가 복합적·근대적 여성상의 경향이 크다. 그 계층은 주변부 여성부터 중심부 여성에 이르기까지 특징적 직업과는 무관한데, 이러한 성향의 여성은 고급 의복소재, 새로운 서양 문물,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에 나타나는 여성상과는 대조적으로, 정체성의 부재 속에서 의미 없는 외양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있다.

## 6. 퇴폐성

소설 속에서의 퇴폐성은 사회의 도덕적 윤리에 벗

어난 행동이나 품목의 사용, 짙은 화장을 한 여성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정숙한 여성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고, 착용자를 부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표 6).

〈죽음(1924)〉에서 전직 기생인 창숙은 여학생의 옷차림에 대해 “치마는 왜 그리 올라가고, 저고리는 왜 그리 길어지우. 그러다가 치마는 올라가서 저고리가 되고, 저고리는 내려가서 치마가 되려나 봐”라고 하며 냉소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여학생들은 지식인이면서도 기생 못지않게 문란한 생활을 했음을 “겉이야 어쨌든지 속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말을 들으니까 우리네보다도 한술 더 뜨나보던데”라는 창숙의 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옷차림과 함께 퇴폐적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타락자(1922)〉에서는 老기생이 “얼굴의 잡티를 감추기 위해 ‘분으로 메이고 메인’ 정도로 짙게 분화장”을 한 것, 〈소복(1938)〉에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용녀가 “전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그런 버릇이라고는 통 없었는데”, 요즘엔 머리에 “동백기름”을 “번지르르” 하게 바르고 목까지 두껍게 “분을 바르고” 게다가 얼굴에는 “어울리지도 않게 연지칠을 그것도 요량없이 함부로 해 놓은 것”, 〈심문(1939)〉에서는 하얼빈에서 삼류 사류 카바레의 댄서로 일하는 여옥이 “빨강계 손톱을 물들인 손가락”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생, 댄서, 불륜녀’로서 우아한 심미적

〈표 6〉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퇴폐성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여학생	너무 짧은 치마, 긴 저고리(24)	서울	퇴폐	전통적 복합적 근대적
기생	길은 분 화장(22)	서울		
주부(불륜녀)	길은 분 화장과 연지 화장(38)	서울		
카페 여급	길은 분 화장, 구두, 향수, 담배(37)	서울		
카바레 댄서	빨간 매니큐어, 담배(39)	하얼빈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퇴폐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심문〉에서 여옥의 ‘빨간 매니큐어’에 대해, 소설 속에서는 이것이 “그런 직업 여자에게는 큰 장식”이지만 “생활에 펍 시달린 사람 같이 초췌”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밀려나 추락해버린 여성의 이미지와 함께 퇴폐적 경향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따라지(1937)〉에서 카페 여급 아끼꼬의 생활 속 모습, 즉 “뒷마루 위에 조심함 없이 올려 놓인 구두”, “아래위 턱도 몰라보는 애들이 난봉질에 향수만 찾고” “담배 연기 가득 찬 방안에는 분내가 핵끼치고” 하는 것과 〈심문(1939)〉의 여옥이 “담배” 피는 것은 정숙한 여성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따라지〉의 아끼꼬가 사는 집의 주인은 “카펜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들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변부 여성으로 밀려난 특정 직업여성이나 여학생에 의한 매우 짧은 치마, 길은 화장, 담배, 매니큐어 등, 자극적 요소의 퇴폐적 차림새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여과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미의 취향과는 상반되는 외모 표현을 통해 당시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일부 여성들의 반항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7. 假面的 기제

가면적 기제는 착용자가 他人에 대해 자신의 참모습(신분, 상황)을 속이기 위해 의복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설 속에서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착용자의 ‘은폐, 위장’의 행위가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여성들에게 나타난 일반적 경향이 아닌 소설 속 일부 여성에게서 한정적으로 보여 지고 있다(표 7).

〈중생기(1936)〉에서 나(李箱)는 “다홍 댕기가 늘 등에서 나부끼는” 19세 정희가性に 대해 전혀 모르는 순결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미 정희는 만14세에 매춘을 시작했던 여성이었다. 이때 내가 정희를 오해하게 된 단서는 ‘다홍 댕기’로, 이는 그녀의 매춘 경험에 대한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땀은 머리끝을 붉은색 댕기로 장식하면 처녀를 의미한다는 풍습이 이러한 오해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도쿄 배경의 〈失花(1939)〉에서 여학생 C양은 ‘오사게 머리’를 하고 학교로 등교하는데, 이 여학생은 C군과 동거하고 있다. 오사게(おさげ) 머리는 긴 두발을 좌우에서 묶고 양 어깨에 걸치는 머리형의 속칭이다.<sup>49)</sup> 이 머리형은 여학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소설 속 C양도 그런 외양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실상 그녀의 생활은 성 문화에 개방적인 외양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생의 신분으로 남학생과의 동거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천변풍경(1936-37)〉에서 여공인 곰보 미장이의 누이는 “교직 국사 저고리에 지리멧 검정 치마를 입고 납작 구두를 신은 맴시도 썩 어울리는” 여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공장생활을 하는 여자답지 않은” 것으로, ‘교직국사, 지리멧, 구두’가 당시 여공의 이미지와는 상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여성들의 대화 중 “그, 저어번에 입었던 국사 저고리 아뉴?... (중략)... 한 번 입구, 오늘 침 뻐 게 이 꼴이구료?... (중략)... 그러기에 나 먹은 사람은 호살 말라는 게지...(중략)... 그거, 인조야?... (중략)... 인존, 웨에? 이 꼴에 이게 한 자 사십

<표 7>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가면적 기제

신분	품목	공간적 배경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매춘녀	다홍댕기(36)	서울	순결함	부정적	복합적 근대적
여학생	오사계 머리(39)	도쿄			
버스 안내양	두꺼운 책보(36)	서울	지성의 이미지		복합적
여공	교직 국사저고리, 지리땀 김정 치마, 구두(36-37)	서울	부유함	복합적	
여학생	모시치마, 모시적삼(37)	시골	소박함		긍정적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전짜리 교직이라우...(중략)...그게 사십 전예요요?" 라는 대화 내용을 통해, 1930년대 교직국사의 높은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소설 속 미장이 누이가 여공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 기준으로 비싼 소재의 옷을 입고, 구두까지 신었던 것은 타인에 대해 자신이 여공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종의 위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 위장의 다른 예로, <따라지(1936)>에서 세입자 영감네 딸인 버스걸은 고등과 여학생으로 신분 위장을 하기 위해 항상 큰 책보를 끼고 다녔다.

이와 같이 <천변풍경>, <따라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은폐하기 위해, <종생기>의 정희와 <실화>의 C양은 순결한 여학생으로 이미지를 은폐하기 위해 의복과 머리모양 등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저에는 착장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이와 달리 <비탈(1937)>의 김부자 딸 주희의 “모시치마에 모시 적삼”을 입은 수수한 차림은 집안이 풍족함에도 ‘부자집 딸’ 같지 않은 모습으로 부유한 그녀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당시 대부분의 여학생들에게 보여 졌던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다.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他人으로부터 순결한 여성으로서, 지성을 갖춘 여성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보여 지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가면적 기제의 경향은 복합적 여성상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 8. 가치관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은 소설 속 인물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치관의 전환 시점에서 착용자의 의복 스타일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8>.

먼저 <어머니와 딸(1931)>의 주옥은 시골 거주 주부로 전통적 여성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남편 봉준의 귀국 후 경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학교를 다니게 된 것과 봉준으로부터 ‘노랑구두, 살색 양말, 분, 크림, 향내나는 비누’와 같이 새로 접하게 되는 품목들은 주옥의 삶이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 양말을 바로 신지 못하거나 구두를 신자 “아찔해지며 방 안이 뿡 돌아 겨우 바람벽을 의지하여 일어설” 정도로 구두 굽에 익숙하지 않았고, “구두를 신고 나가기가 껍이나 부끄러웠”던 주옥은 점차 “어쩐지 옛날 자기와는 판판이 된 듯한 느낌이 생겼”고 “자기의 달라진 옷맵시”를 자랑하고 싶어 정도로 변화되었다. 어느새 ‘화장’을 하며 자신을 가꾸고 신문을 읽는 지성미를 갖춘 미모의 여성으로 변모되면서 남편에게 “나도 이제부터는 나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보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삶이겠지요!”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어떤 夫妻(1938)>의 전업주부 회경은 무직자 남편을 대신하여 J그릴의 레지스터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 그때의 차림은 “육양목 적삼에 검정 메린스 치마”를 입은 수수한 모습으로, 취직 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만 집중되는 것 같아 얼굴을

〈표 8〉 소설 속 복식에 나타난 가치관의 전환

소설 제목	옷을 매개로 한 전후 변화(품목)		소설 속 상징성		여성상
	前	後	前	後	
어떤 夫妻(38) ↓ 치정(38)	전업주부 육양복 적삼 검정 매린스 치마	카운터 계산원 양장(스커트, 블라우스) 심프슨 머리 눈화장(아이새도) 연지, 립스틱 ↓ 퍼머넌트, 양장, 분화장	전업주부 수수한 모습 순중, 소극적인 전통적 여성상	카운터 계산원 단장 기교 발전 유행 추구 요염한 근대 여성 ↓ 퇴폐적	(前) 전통적 ↓ (後) 근대적
	어머니와 딸(31)	주부(시골 거주)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여학생(경성 거주) 구두, 스타킹, 화장(분, 크립)	주부(시골 거주) 자신감 결여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둘릴 곳조차 없을” 만큼 타인의 주목을 부끄러워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레지스터로 일하게 되면서 매니저로부터 권유받은 ‘양장’의 착용은 희경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초록색 스커트, 오렌지 빛 블라우스’를 시작으로 양장을 입게 된 희경은 “잠자는 어린애조차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게 되었고 머리모양도 “심프슨 머리”같은 새로운 서양식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점차 “몸단장하는 기교도 나날이 늘어갔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던 심프슨 머리도 인제는 아주 제격이고, 얇전하게 가지런히 닳던 눈썹은 어느 곁에 높게 꼬리를 들어 올라가다가 급작스레 떨어지는 유행형으로 변했으며, 다갈색 아이새도우, 자연색 연지,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루우즈”와 같은 것들은 옛날 희경의 얼굴을 “아주 딴 사람같은 요염한 근대식 미인”으로 바꿔 놓았지만, 외모의 변화는 희경이 가정을 등한시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옷타령, 머리타령만”하는 여성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후의 <치정(1938)>에서도 희경은 J그릴의 레지스터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속이고 매니저와 함께한 새벽까지의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희경은 “다리를 비틀거리며 함부로 엉클어진 ‘퍼머넌트’, 구기 구기한 양복”의 차림으로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그 모습은 “수세미가 된 머리, 창백한 안색, 분 벗겨진

뺨”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떤 부처>, <치정>에서 희경은 레지스터로 일하기 이전에는 유행과 거리가 먼 무채색의 개량한복을 입는 ‘전통적인 여성’이었으나 취직 후 화려한 최신 유행의 양장을 입고, 서양식 머리모양과 색조 화장으로 자신을 치장할 뿐 가정을 등한시 하는 ‘퇴폐·타락한 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소설 속 여성의 가치관 변화 전후에는 그 여성의 심리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의복이 항상 개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통복을 착용할 때는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있는 모습으로, 반면 서양복을 착용할 때는 근대적·능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작가들이 전통 복식과 전통적 여인상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킨 것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어떤 부처>, <치정>의 희경의 경우, 그녀의 타락한 부정적인 모습도 양장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 IV.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복식의 종합적 분석

본 장에서는 근대소설 속에서 드러난 세 유형(전통적, 복합적, 근대적)의 여성상과 그들이 착용한 복식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여성들에게 형성된

사회적 자아개념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이들이 선택한 복식도 그 일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복식을 착용한 그들의 모습을 먼경 자기(looking-glass self)적 시선으로 고찰하는데, 근대소설 속 '복식'은 각 유형의 여성상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 1. 전통적 여성상과 복식

전통적 여성상은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소설까지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부로서 舊風을 답습하고 가부장적 생활방식에 순응하면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유행에 뒤떨어진 '구식여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의 복식은 <표 9>와 같이, '저고리, 치마에 쪽머리'와 같은 前근대적 외양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트로피즘적 외양성, 섹슈얼리티 표출, 도농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가치관의 전환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트로피즘적 외양성에서는 의복 소재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는데, 세모시·생노방주·모시진술은 부유함을, 무명·당목·삼베는 가난함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가난함'의 표현과 관련하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1930년대 소설에서의 '고무신, 옥양목 적삼, 메린스 치마, 흰 저고리, 검정 치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가치관의 전환 항목에서의 '저고리, 치마'는 근대적 여성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 2. 복합적 여성상과 복식

복합적 여성상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여성상에 비해 시기적으로 분포 범위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서양식 외모를 지향 혹은 전통적 외모를 유지하면서도 '지성 겸비, 가정경제 책임, 독립적 생활 영위, 당대의 도덕규범의 무시, 개인감정의 적극적 표현'과 같은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여성으로 분류되는데, 소설 속에서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여성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복식의 근대화' 보다는 '사고방식의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여성상의 직업군은 주부, 카페여급, 매춘녀, 백화점 점원, 여학생, 여공, 유학생으로 전통적 여성상에 비해 다양해졌다.

이들의 복식은 <표 10>과 같이, 전통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서양식 의복과 기호품인 스커트, 외투, 스타킹, 양산, 장갑, 화장품, 시계, 향수, 담배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패션리더인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 시기 전통복식의 형태에 변화를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카페여급을 중심으로 사용된 서양식 기호품인 향수, 담배는 퇴폐적 여성상을 드러내는 대표적 품목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복식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트로피즘적 외양성, 섹슈얼리티 표출,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퇴폐성, 가면적 기제'의 항목으로 나타나는데, 전통적 여성상의 복식에 비해 '트로피즘적' 경향은 줄었고, '퇴폐성, 가면적 기제'의 경향은 급격히 증가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윤리적

<표 9> 전통적 여성상에 나타난 소설 속 복식

품목	신분	사회문화적 의미
12승 세모시치마/8승 무명치마(06), 당목 옷·청록당혜(20), 삼베 치마(32, 36), 생노방주 옷(36), 모시 진술 옷(37-38),	농부아내, 주부	트로피즘적 외양성
숙고사 저고리(22), 하부다이 저고리, 치마, 쪽진머리, 버선(23)	기생	섹슈얼리티표출 (시스루, 은폐부위의 노출)
흰 고무신(35, 36-37, 37, 38), 고무신(32, 36-37), 검정 고무신(32)	주부, 농부아내	都農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옥양목 적삼, 검정 메린스 치마(38)	주부	가치관의 전환(전환 이전)
검정치마, 흰 저고리(31)	주부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표 10> 복합적 여성상에 나타난 소설 속 복식

품목	신분	사회문화적 의미	지향 사고방식
두루마기, 외투, 여우목도리, 회색 장갑(24)	주부	트로피즘적 외양성	전통적
향라적삼, 치마(36)	카페여급 · 주부	섹슈얼리티 표출 (시스루 룩)	근대적
치마, 저고리, 버선, 쪽머리, 가지각색의 화장품(36)	매춘녀 · 주부	섹슈얼리티 표출 (후각적 감각)	
백화점 근무시(저고리, 치마), 털을 댄 외투, 손목시계(33-34)	학생운동가 · 백화점 점원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향라 적삼, 목메린스 치마(37)	주부		
너무 짧은 치마, 긴 저고리(24)	여학생	퇴폐성	
길은 분 화장, 구두, 향수, 담배(37)	카페 여급		
따뜻한 머리, 다홍댕기, 스커트, 스타킹(36)	매춘녀	가면적 기제	
교직 국사저고리, 지리멧 검정 치마, 구두(36-37)	여공		
모시치마, 모시적삼, 양산(37)	일본유학생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표 11> 근대적 여성상에 나타난 소설 속 복식

품목	신분	사회문화적 의미
신식 트레머리, 왜사적삼, 조세트치마, 스타킹, 하이힐, 양산(32)	여학생	트로피즘적 외양성
트레머리, 구두, 손목시계(31)	일본유학생	
교복, 구두, 트레머리, 양산(35)	여학생	
히사시가미(39)	일본유학생 · 식모	
검은 보이루 치마, 인조견 속치마, 양복, 퍼머넌트, 하이힐, 양산, 손목시계, 손수건(37)	여학생	트로피즘적 외양성, 허영
명주 해수욕복(39)	화가	섹슈얼리티 표출(바디컨서스)
보랏빛 치마, 화려한 긴 소매 상의, 나비모양 리본 머리장식, 하이힐(39)	일본유학생	허영
양장(스커트, 블라우스), 머리모양(심프슨 머리, 퍼머넌트), 스타킹, 시미이즈, 분화장, 아이새도, 연지, 립스틱(38)	카운터 계산원	허영, 퇴폐성, 가치관의 전환(전환 후)
핸드백, 트레머리(39)	주부	허영
루비반지(38, 39)	기생, 카페여급	
양장, 빨간 매니큐어, 담배, 핸드백(39)	카바레 댄서	퇴폐성
오사게 머리(39)	일본유학생	가면적 기제
구두, 스타킹, 화장품(분, 크림)(31)	여학생	가치관의 전환(전환 후)

괄호 안 숫자: 작품발표시기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취했던 여성상의 등장에 의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근대적 여성상과 복식

근대적 여성상은 복합적 여성상에서 드러난 근대

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서양식 의복을 추종·지향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여성상이 1930년대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 여성상을 추구했던 여성들은 여학생, 유학생, 카운터계산원, 식모, 주부, 기생, 카페여급, 카바레 댄서와 같은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복합적 여성상에 비해 큰 변

화는 없으나 여학생과 일본 유학생의 비율이 보다 높아졌다.

이들의 복식은 <표 11>과 같이, 전통적·복합적 여성상과 비교했을 때 양복을 기본으로 다양한 서양식 머리인 트레머리·히사시가미, 퍼머넌트, 심프슨 머리, 오사게 머리와 스타킹, 양산, 손목시계, 손수건, 리본 머리장식, 속옷, 화장품, 핸드백, 매니큐어, 담배와 같은 서양식 잡화 사용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30년대 소설부터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하이힐(뽀족 구두)' 착용은 복합적·근대적 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민적이면서 전통적 여성상을 상징하는 '고무신'과 대조적이다.

또한 이들 복식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트로피즘적 외양성, 섹슈얼리티 표출, 허영, 퇴폐성, 가면적 기제, 가치관의 전환 이후'의 항목으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의 비정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서양식 복장의 여성들을 향한 당대의 부정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이중 트로피즘적 경향은 전통적 여성상에서도 나타나지만 복식 형태에 있어서는 전통복식에서 서양복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여기에는 '허영'의 개념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섹슈얼리티의 표출에 있어서는 전통적, 복합적 여성상과 달리 착용자의 몸매에 대한 직접적 묘사를 행함으로써 1930년대에 여성의 이상적 신체 기준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V. 근대소설 속 여성 복식을 통해 본 문화변화과정

본 장에서는 근대 소설에서 창출된 사회문화현상과 여성복식의 특징을 시대별로 조망하고, 시기별 변화와 여성상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1900-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문화현상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의지와 계몽에 따른 '능동적 가치관의 부상',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지리적 활동 공간범위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전통복 착용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都

農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서울에서는 장옷, 쓰개치마와 같은 舊風 폐지 논의가 발생하는 등 전통 제도의 개선 의지가 발휘됨으로써 여성들의 근대적 시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당시 전통복식이 '매스패션'으로 인식되고 있던 반면, 서양복은 극소수 신문명 수용자의 문화적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계'와 같은 품목은 구매자의 과시와 사치를 드러내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었다. 이밖에 소재는 면, 마, 사, 주 등이 언급되었다. 당대 소설에 나타난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전통적 여성상을 중심으로 한 '트로피즘적 외양성'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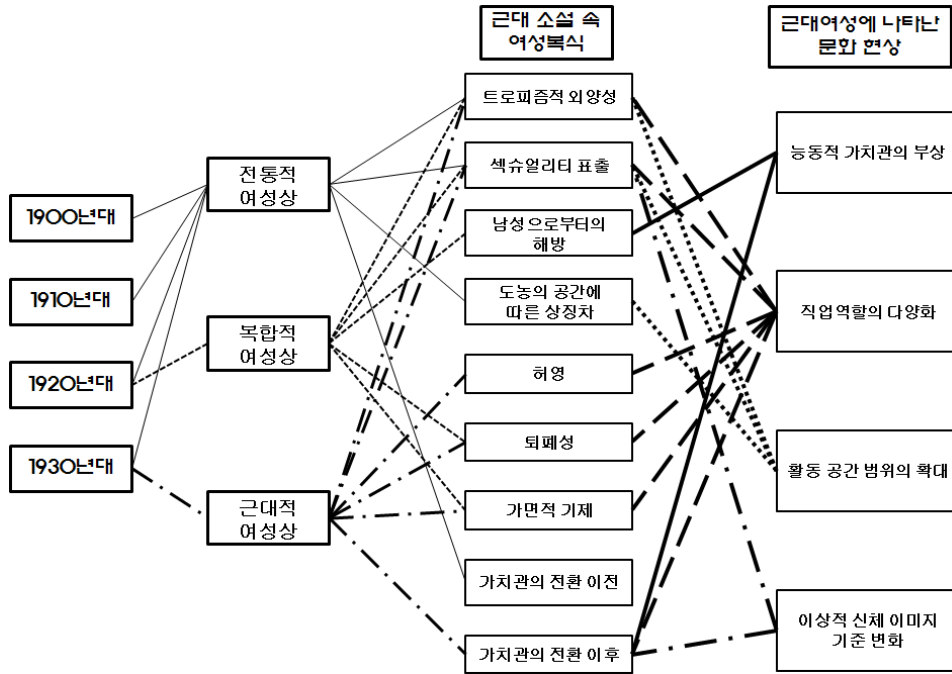
1920년대 소설에서는 자아를 자각하는 여성 증가에 따른 '능동적 가치관의 부상',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직업 역할의 다양화', 유학생에 의한 '지리적 활동 공간범위의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때의 복식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통복 개량, 서양복 착용, 서양식 잡화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당시 전통복의 개량은 시대 아이콘인 여학생이 주도한 것으로 너무 짧은 한복 치마의 착용 모습 등은 지성인이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 메이커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산, 하이힐, 서양식 머리와 질게 화장하는 여성 비율 증가도 눈에 띄는데, 특히 망토는 기생들만 착용했던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재는 당목·옥양목·서양목·깃무명과 같은 면직물, 하부다이, 고사·숙고사, 모본단, 명주 및 양색 왜증, 생수 등으로, 이전 시기보다 다양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른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기생에 의한 '섹슈얼리티의 표출(시스루, 은폐부위의 노출)', 여학생과 기생에 의한 '퇴폐성'이 확인되었다.

1930년대 소설에서는 직업군의 급격한 증가가 가장 주목되는 현상으로, 이는 신여성의 증가 외에 당시 남성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 구직을 하게 되었던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양 체형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기준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현상도 새롭게 나타났다.

당시의 전통복식은 1920년대 이래 큰 변화가 없지

〈표 12〉 근대 소설 속 여성상에 구현된 사회문화현상과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와의 상관관계



만, 서양복은 새로운 품목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드로워즈, 시미즈, 털외투,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해수욕복과 같은 의복류 외에 향수, 담배와 같은 기호품 및 매니큐어, 아이새도, 립스틱, 고무신, 리본과 같은 머리장식과 다양한 머리형인 트레머리·히사시가미, 퍼머넌트, 심프슨 머리, 오사게 머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중 '드로워즈, 시미즈, 이브닝 드레스, 해수욕복, 향수, 담배, 매니큐어'는 1930년대에 빈번하게 묘사된 퇴폐적·섹슈얼한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근대 공업화 산물인 고무신은 都農의 시각차, 빈부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품목이었고,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한 인조섬유, 보이루, 인조견, 우단, 죠세트 등과 같은 소재도 고급 의료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1930년대 소설 속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도농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가면적 기제, 가치관의 전환' 항목이 나타나고 있다.

IV장과 V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 소설 속 여성상에 구현된 사회문화현상과 복식의 사회

문화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대 시기에 접어들어 舊習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복합적, 근대적 여성상'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주도의 사회활동이 빈번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직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 사회 환경 조성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근대적 여성들이 主가 되어 서양 복식을 통해 자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당시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남성으로부터의 적극적 분리를 시도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전통적 여성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새 시대로부터는 격리된 채 새로운 문화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므로, 사회문화현상 창출에 기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중 '도농의 공간에 따른 상징차' 항목은 전통적 여성상의 대표적 상징성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외 '트로피즘적 외양성, 퇴폐, 허영'의 항목에도 그들의 복식문화가 일부 투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문화현상에서는 '직업 역할의 다양화'가, 복식의 상징적 의미에서는 '섹슈얼리티 표출'과 '가치관의 전환'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 가장 두드러졌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900-1930년대 근대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 복식을 살펴보고, 당대 문화현상과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 및 소설 속 전통과 서양의 복식문화의 시기별 추이도 고찰하였다.

근대 소설 속 여성들에게 구현된 창발적 문화현상들은 '능동적 가치관의 부상, 직업 역할의 다양화, 지리적 활동 공간 범위의 확장,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기준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로의 진출 증가와 함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새로운 문화 세력으로 편입되지는 않아, 근대 소설 속 여성들은 구문화와 신문화에 대한 사고방식에 따라 '전통적 여성상, 복합적 여성상, 근대적 여성상'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구습에 안주하는 여성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분류된 여성상에 따라 추구하는 복식 성향도 다른데, 전통적 여성상은 잔여 문화적인 전통복식을, 근대적 여성상은 창발적 문화 경향이 강한 서양복식을 향유하고 있었고, 복합적 여성상은 전통과 진보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근대 시기 복식문화는 전통과 서양복식이 꾸준히 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병립 현상은 전통 의복이 복식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근대 이전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지배 문화 경향으로, 병립 과정 속에서 그들의 복식은 전통과 서양복식문화의 '충돌, 공존, 조화'의 틀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충돌' 현상은 1900-1910년대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의식 전환기였던 당시 여성의 생활을 구속하는 전통복에 대한 반발 의식이 확산된 것과 신문화 수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서양복이 아직은 대중화에 이르지 못하고 하이패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존' 현상은 1920년대 소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여학생을 중심으로 시도된 치마 길이 축소 등의 전통복 개량은 서구에서 플래퍼(flapper)를 위한 기능성 의복이 유행했던 당시 패션 경향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서양복 착용, 서양식 잡화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통복과 서양복의 공존 속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서양복의 대중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화' 현상은 1930년대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회로 진출한 다양한 직업여성의 증가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다수의 서양식 품목들(의복, 기호품, 머리모양)은 복합적·근대적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다만 1930년대를 대표하는 근대 공업화 산물인 고무신과 메린스 소재 의복은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 배경에 무관하게 전통적 여성상의 요소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의 등장은 과거 전통복식문화가 주었던 한국 사회에 서양복식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20년대 이래 전통복식문화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서양복식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복식문화는 '조화'라는 과정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시기 여성 복식에 한정된 것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동시대의 남성 복식에 대한 연구 및 이후의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복식으로서의 이행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최기숙 (2004), 교육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 p. 96.
- 2)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612-660.  
俞水敬 (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서울: 一志社.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2000년조직위원회 (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p. 119-134.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p. 1-140.
- 3) 김미지 (2005),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여*

- 학생과 연애, 서울: 살림.
- 김주리 (2005),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서울: 살림.
- 4)李明姬 (1981), 近代韓國服飾의 變化要因, *복식*, 5: 이송희 (1988), 開化期 服飾의 變遷과 그 要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美子 (1989), 개화기의 여자복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8: 손명임 (1989), 東亞日報에 나타난 服飾의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윤숙 (1990),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복식*, 14: 홍나영 (1990), 한복개량운동에 관한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15: 黃義淑 (1995), 전통복식의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근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培花論叢*, 14: 김윤희 (1996),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 김경희, 조효순 (1997), 韓國開化期 女性服飾의 變遷要因, *복식*, 32: 이노우에 가즈에 (2005), 한국 '신여성'과 '근대'의 만남,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5: 유정이 (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맹문재 (2003), 일제강점기의 여성지에 나타난 여성미용 고찰, *한국여성학*, 19(3). 김희정 (2004), <別乾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 복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2). 이미영, 김관옥 (2007), 1930년대 신여성의 머리양식 고찰, *한국미용예술학회지*, 3(1).
- 6) 안선경, 양숙희 (2001), 한국근대복식문화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지제이션에 관한 연구-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1).
- 7) 박성실 (2003), 개화기의 전통문화와 예술: 개화기 복식의 변천, *동양학*, 34.
- 8) 이지혜 (2007), 한국근대여성속옷의 변천: 하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세가와 리사 (2007), 근대전기 한·일 여성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홍지연, 홍나영 (2007), 1876~1945년 인쇄매체로 분석한 한국근대여성 장신구의 수용과 전개, *한국공예논총*, 10(1).
- 10) 김경일 (2002),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XIX. 김미선 (2005), 1930년대 신식화장담론이 구성한 소비주체로서의 신여성, *여성학논집*, 22(2). 조희진 (2009),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홍성범 (1992), 文學作品에 나타난 女性像과 服飾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진숙 (1996),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복식문화연구*, 4(3), pp. 407-426.
- 13) 정경임 (1999), 효석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복식미, *복식*, 43, pp. 235-240.
- 14) 안선경, 양숙희, *op. cit.*, pp. 50-51. 김경일 (2002), *op. cit.*, pp. 258-259.
- 15) \* 간행일 순으로 정리했음. *한국문학전집 1권·2권·4권* (1967), 서울: 文叢社: *한국문학전집30 단편집(상)* (1968), 서울: 민중서관: *乙酉文庫: 5권(이인직), 14권(이해조), 30권(안국선)* (1969,2), 서울: 乙酉文化社: *한국단편문학대계 2권~5권* (1969,8), 서울: 삼성출판사: *한국대표문학전집(12)-대표단편 13인집-* (1970), 서울: 삼중당: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1권~3권* (1974), 서울: 을유문화사: *한국단편문학전집 1권~3권* (1975), 서울: 백수사: *한국문학전집38(단편)* (1989), 서울: 삼성이데아: *한국현대문학대계 3권·4권* (1994), 서울: 민음사: *한국문학총서 5권* (1997), 서울: 해냄.
- 16) 1900년대(3편), 10년대(2편), 20년대(9편), 30년대(36편) \* 소설가별로 나열했음(가나다 순) 이때 선정 기준에 맞는 소설로 제한한 관계로, 선정된 소설 수가 시대별로 일정하지 않음  
강경애-어머니와 딸(31); 김동인-마음이 열은 자여(20), 김연실전(39); 김말봉-고행(35); 김영수-소복(39); 김유정-소나기(소낙비)(34), 금 따는 콩밭(35), 따라지(36); 김정한-사하촌(36); 박영준-증독자(38); 박태원-천변풍경(36-37); 박화성-비탈(33); 심훈-동방의 애인(30), 영원의 미소(33-34); 안국선-애국정신(08), 공진회(15); 염상섭-만세전(22), 전화(25), 조그만 일(36); 유진오-어떤 부처(38), 나비(39), 치정(38), 화상보(39-40); 이무영-제일과 제일장(39); 이상-날개(36), 중생기(36), 실화(39), 지주회시(36); 이석훈-負債(부채)(39); 이인직-은세계(08), 모란봉(13); 이태준-심문(39); 이해조-빈상설(07); 이효석-거리의 목가(38), 장미병들다(38), 분녀(36); 전영택-남매(35); 정비석-성황당(37); 조명희-낙동강(27); 주요섭-아네모네의 마담(36), 미완성(32); 채만식-탁류(37), 치숙(38), 순공있는 일요일(36), 태평천하(38); 최정희-지맥(37); 한용운-죽음(24); 함대훈-순정해협(38); 현진건-빈처(21), 타락자(22), 지새는 안개(23), 운수좋은 날(24)
- 17) 이수자 (2006), 문화 연구와 페미니스트 문화이론: 몸, 섹슈얼리티, 주체 논의의 계보학적 이해, *문화와 사회*, 1, p. 57.
- 18) 이성화 (2004), 또 다른 근대의 사회학과 문화이론: 생활세계의 문화적 전환과 일상에서의 조월, *정치사상연구*, 10(2), p. 219.
- 19) 김민 (2005), 서평: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3(1), p. 72.
- 20) 楊慶淑 (1997), 헤게모니이론에 대한 연구, *경북외국어전문대학 논문집*, 3, p. 136.
- 21) 문종대 (1993),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11, p. 225.
- 22) 현남숙, *op. cit.*, p. 161.
- 23) 김용규 (2007), 스투어트 홀과 영국 문화연구의 형성, *새한영어영문학*, 49(1), pp. 2-3, p. 24.
- 24) 원용진 (2000), 문화연구와 스투어트 홀, *문화과학*, 23, p. 318.
- 25) 현남숙, *op. cit.*, p. 163.
- 26) *Ibid.*, pp. 161-162. 문종대, *op. cit.*, p. 226.
- 27) 申東順 (2007), 영화 <신여성>과 1930년대 상해 문화 헤게모니 小考, *中國小說論叢*, 26, p. 342.
- 28) 최기숙, *op. cit.*, p. 102.

- 29) 홍성범, *op. cit.*, pp. 8-9.
- 30) 윤영옥 (2005),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국어문학* 40, p. 204.
- 31) 권희영 (1998),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 p. 55.
- 32) 김동규, 임선애 (1996), 한국 근대소설과 신여성의 의미, *경동전문대학 논문집* 5, p. 374.
- 33) 엄미옥 (2006), 近代小說에 나타난 女學生 연구-1920-30년대 중반 教育을 통한 女性主體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語文研究* 34(3), p. 388.
- 34) 우정미 (2007), 韓日新女性的 職業觀研究, *日語教育* 39, p. 165.
- 엄미옥 (2008), 근대소설에 나타난 직업여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4, p. 174.
- 35) 엄미옥, *Ibid.*, p.175.
- 36) 김원 (2004),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3(1), p. 182, p. 197, p. 198.
- 37) 빈처(1920), 술권하는 사회(1921), 타락자(1922), 전화(1924), 조그만 일(1926)의 부인 등
- 38) 만세전(1922)의 올라, 지새는 안개(1923)의 정애, 화라, 영숙 등
- 39) 비탈(1937)의 수옥, 주희, 失花(1939)의 C양, 김연실 전(1939)의 김연실, 최명애, 송안나, 지맥(1939)의 하순, 동방의 애인(1930)의 영숙, 어머니와 딸(1931)의 주옥, 숙희 등
- 40) 누이동생을 따라(1930)의 용녀, 소나기(1935)의 춘호 처, 쇠들엄마, 날개(1936)의 연심, 종생기(1936)의 정희 등
- 41) 지주會豕(1936)의 아내, 아네모네의 마담(1936)의 영숙, 따라지(1937)의 영애, 아끼꼬, 어떤 夫妻(1938), 치정(1938)의 회경, 나비(1939)의 명순, 사다꼬, 천변풍경(1936-37)의 하나꼬, 기미꼬, 심문(1939)의 여옥 등
- 42) 醜物(1936)의 언년, 분녀(1936)의 분녀, 지맥(1939)의 은영
- 43) 김경일 (2001), 1920-1930년대 신여성의 신체와 근대성, *경신문화연구* 24(3), p. 187.
- 안미영 (2006),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여성문학연구* 15, p. 129.
- 44) 김미선 (2005), 1930년대 신식화장담론이 구성한 소비주체로서의 신여성, *여성학논집* 22(2), pp. 160-162.
- 45) 김경일 (2001), *op. cit.*, pp. 190-191; 맹문제, *op. cit.*, p. 11.
- 46) 김미정 (2007), 섹슈얼리티, 한국 근대문학사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18, p. 391, p. 394.
- 47) 김경일 (2002), *op. cit.*, p. 230.
- 48) 장병호 (1993),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고찰, *창립어문학* 9(1), p. 312.
- 49) 자료검색일 2010. 10. 2, <http://ja.wikipedia.org/wiki>